

 POSRI 보고서

# 문 열린 미얀마, 일본이 먼저 들어갔다

조대현 수석연구위원, 지역·경제연구센터 (chodh@posri.re.kr)

## [목 차]

1. 미얀마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
2. Big 4(중·미·일·인도)의 대 미얀마 전략
3. 일본의 발 빠른 행보에 대응 필요

## Executive Summary

-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중간에 위치, 동-서남아 연결 및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 또한 다양한 천연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미개척 시장으로 최근 Big 4(中, 美, 日, 印)의 영향력 확보 경쟁 심화

|    |                                                                |
|----|----------------------------------------------------------------|
| 중국 | 미얀마는 중국 대륙에서 인도양 진출 위한 남진정책 시작                                 |
| 미국 | ‘아시아 중시정책’ 따른 중국 견제 및 영향력 확대 위한 마지막 퍼즐                         |
| 일본 | ‘China + 1’의 핵심국가 중 하나로 향후 서남아, 중동 공략의 교두보                     |
| 인도 | 동서남아에서의 중국견제 및 영향력 강화 위해 결성한 BIMSTEC (벵갈만 포괄적 경제협력체)의 주요 회원 국가 |

- Big 4는 미얀마의 변화와 중요성을 인식, 영향력 확대 위해 경쟁적 구애 중

|    |                                                                                                                                                                                                                                                                                                                                                        |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방 지원 강화 및 반 중국 정서를 의식, ‘연성전략’으로 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문화, 과학기술, 보건, 농업, 관광 분야 상호이익 증대합의</li> <li>▶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에 병원과 학교 20개 지원계획 발표</li> <li>▶ 현지 사회발전 지향 및 일자리 창출위한 제조업 진출 확대 전망</li> </ul> </li> </ul>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제재 해제를 지렛대로 영향력 확대 및 기업 진출 개시</li> <li>- 금융거래 금지, 자산동결, 미얀마산 수입금지 해제 발표(‘12.9)</li> <li>* 실제 달러 금융거래, 미얀마 제품 수입 등은 내년 4월 시행 예상</li> <li>- 코카콜라, 포드, 마스터 카드 등 미국 대표 기업들의 진출 시작</li> </ul>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l Japan’ 기치로 민관 협력 하에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0억엔 채무탕감과 차관 제공여 등 대대적 지원 합의(‘12.4), 부처별 일본기업 지원안 마련(‘12.9), 민관협의회 창설(‘12.10) 등</li> <li>▶ 올해 상사진출 완료 및 음료와 편의점에서 금융, IT, 건설, 자동차, 천연가스 등 대부분의 업종 진출 증가</li> </ul> </li> <li>- 전문가들은 일본기업의 신속 행보에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li> </ul> |
| 인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미국 지원 및 중국과 차별화 전략 추진으로 진출 적극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관심 갖지 않는 낙후산업기반과 인적자원 개발 지원합의</li> <li>▶ 싱 총리의 미얀마 방문으로 관계 긴밀화</li> </ul> </li> </ul>                                                                                                                                        |

- 인프라, 전력, 천연자원 확보, 양곤 개발 등에 걸쳐 일본의 발 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 정부와 협력 진출: 양국 대통령 교차 방문 후 협력강화 합의. 우선 댐과 개발 및 양곤 개발 프로젝트 협력방안 모색 (일 상사와도 협력 검토)
- 대외 지원자금 활용: WB, IMF, ADB 등의 지원자금 활용 모색

## 1. 미얀마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

- 중국과 인도의 중간에 위치. 인도와 벵갈만을 마주 보고 있는 동-서남아 연결의 길목이자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
  - 중국 : 미얀마는 중국 대륙에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남진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국가
    - 진주목걸이 전략 (미얀마 짜옥푸- 방글라데시 치타공- 스리랑카 함반토타- 파키스탄 과다르)의 시작점
  - 미국 :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회귀 ('11) 함에 따른 중국의 대양 진출 견제 및 역내 영향력 확대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
    - 남중국해와 호주에 미국 해병 순환 배치, 베트남과의 군사관계 강화 등 일련의 대 중국 압박 정책에서 지리적으로 마지막 남은 빈칸을 채우는 성격
  - 일본 : ‘China+1’ 핵심국가의 하나로 향후 서남아, 중동 공략의 교두보
    -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특히 다웨이 개발은 태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주요 입주 예상 기업은 일본계로 인도·중동 공략의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
  - 인도 : 동서남아에서의 중국 견제 및 영향력 강화 위해 결성한 BIMSTEC (벵갈만포괄적경제협력체)의 주요 회원국가
    - \* BIMSTEC: 인도 주도 경제협력체로, 서남아의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및 동남아의 미얀마, 태국 등 7개국으로 구성
- 다양한 천연 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미개척 시장

- 천연가스 및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반면 경제제재의 영향 등으로 대부분 미탐사·미개발 상태
  - 천연가스 매장량 23조 입방피트. 다양한 광물자원 및 옥과 루비 등 보석 생산이 많아 ‘아시아의 진주’로 불림 (루비는 전세계 생산의 99% 점유)

<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

| 광물명 | 철광석   | 석탄    | 동(구리) | 아연    | 니켈      | 우라늄  |
|-----|-------|-------|-------|-------|---------|------|
| 매장량 | 7.2억톤 | 3.9억톤 | 11억톤  | 532만톤 | 4,266만톤 | 40만톤 |

출처: 미얀마 광업부 자료 및 무역관 자료 취합 (2012)

- 인구 6천만 명 이상. 특히 40세 미만 인구 비중이 70%로, 향후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높음
- 임금은 동남아 최저 수준으로 베트남의 50~60%에 불과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
- WSJ (2012)은 미얀마를 ‘아시아에서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평가

## 2. Big 4(중, 미, 일, 인도)의 대 미얀마 전략

1) 중국, 유일한 후원자로서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다가 미·일·인도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존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

□ 신군부 집권('88) 및 미국과 EU 경제제재 이후 정치·경제·외교의 유일한 후원자 역할. 인도양 진출 교두보 및 자원 확보 성과

○ 벵갈만에 위치한 짜옥퓨 개발로 인도양 연결로 확보

- 심해항 및 경제특구 (중국기업 전용) 개발
- 짜옥퓨-쿤밍 간 천연가스 및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중('13.5 완공 목표)으로 향후 중동 및 아프리카 수입 원유에 대한 말라카 해협 우회로 확보
- 파이프라인을 따라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 인도양 진출 육로 개발

○ 중국 중서부 개발에 필요한 전력·석유·천연가스 확보

- 2010년 미얀마에 80억 달러를 투자한 가운데, 수력발전에 50억 달러, 석유·천연가스에 21억 달러, 광산에 1억 달러를 투입.
-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는 '11년 한해 완공된 것이 5개, 건설 중 47개, 신규 제안 10개로 생산 전력의 80~90%를 중국으로 송전

□ 서방세계의 지원이 강화되고 과도한 중국 의존에 대한 미얀마의 반발도 나타남에 따라, 자국 이익 중심 전략에서 '연성 전략'으로 변화 추진 중

○ 떼인 세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토록 외교력 발휘,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특히 교육, 문화, 과학기술, 보건, 농업, 관광 등에서의 상호이익 증대 합의 ('11)

○ 자국(중국) 이익 관점의 접근이 아닌 현지 사회발전 위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조업 분야 진출 확대

- 만달레이 및 레피도 공항건설 지원, 델라와 경제특구 건설 참여, 동아시아게임('13) 경기장 및 숙박시설 건설 지원, 양곤 전력 문제 해결 위한 발전소 투자 등 추진
- 통신·자동차·가전 등 제조업 진출 가속화

○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에 병원과 학교 20개 지원 계획 발표('12.3) 등 현지 공헌 활동 강화

☞ 미얀마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얀마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변화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은 전통적 우방국이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위치할 전망

## 2) 미국, 경제제재를 지렛대로 영향력 확대 및 기업진출 개시

### □ '아시아 중시정책'이후('11) 고위인사 방문으로 관계 급진전

- 2007년부터 양국간 대화 시작. 2011년 후반 데릭 미첼 (9월, 10월) 및 힐러리 클린턴 장관 방문(11월)이 터닝 포인트
- 미국의 선제적 행보는 유럽·일본 고위인사 방문과 관계개선으로 확대
  - 영국 미첼 국제개발장관('11.11), 헤이그 외무장관 ('12.1), 일본 고이치로 외상 ('11.12), 프랑스 쥐페 외무장관 ('12.1) 등이 미얀마 방문
- 중국 압박과 미얀마 진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가 목적
  - 중국의 미얀마 선점 및 동아시아 지역 영향력 강화 견제.
  -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진출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도 담당.

### □ 경제제재는 다수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추진 중, 9월 폐인 세인 대통령 및 아웅산 수지의 미국 방문 이후 제재완화 급진전 (☞ 별첨 1> 경제제재 관련 법령 및 완화 현황)

-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의 정치 자유화 및 미국과의 관계진전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금융거래 금지, 자산동결, 미얀마산 제품 수입금지 해제 발표 ('12.9)
  - 금융서비스 허용: 제재 프로그램 적용을 받던 금융기관 입출금 허용. 하지만 군부와 일부 개인에 대한 송금과 금융서비스 금지는 지속
  - 일부 인사의 자산동결 해제 및 무기류 이외 미얀마산 수입금지 해제
  - 신규투자 허용: 기존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던 신규투자 금지조치 해제. 반면 군부 및 무장단체,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신규투자는 계속 금지.
- \* 비자발급, 국제기구 지원 등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해제
- 반면 미국 정부의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달러 금융거래와 미얀마산 제품 수입 등은 내년 4월은 돼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 (현지 전화 인터뷰, '12. 10.26)
  - 미국 국회 비준에도 시간이 필요해 미얀마 신뢰계연도 개시 시점인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

### □ 제재해제는 시간 문제이며, 올해부터 주요 기업들 진출 시작 (☞ 별첨 2> 미얀마 진출 미국 기업 동향)

- 셰브론, 코카콜라, 포드, 마스터 카드 등 미국 대표 기업들이 미얀마 진출 의사를 표명한 상태로, 현지기업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거나 사업권을 확보

### 3) 일본, All Japan 기치로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진출

□ **폐인 세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12.4)에서 3대 경제협력 방침 합의, 3,000억엔 채무 탕감 등 대대적 지원을 계기로 진출 급물살**

#### <일-미얀마 정상회담('12.4) 주요 내용>

- 3대 경제협력 방침: 국민 생활향상 지원, 인재개발 지원, 인프라 개발 지원
- 채무 탕감: 총 4,933억엔 중 3,035억엔을 탕감하고 1,898억엔은 Program Loan으로 재공여
- 델라와 개발 마스터 플랜 MOI 체결
  - 항만과 배후지역을 경제특구 및 Smart City로 개발
  - 마루베니, 스미토모, 스지쯔, 일본공영 등이 참가한 합작사 설립
  - 국제협력은행 (JBIC) 자금 지원. '12년 마스터플랜 작성, '15년 일부 완공 목표

□ **일 정부, 기업진출 행동계획 및 지원책 마련 통해 전방위 지원**

- 각 부처별 지원책 마련 (9월), 민관협의회 창설(10월)로 적극 지원 개시  
(☞ 별첨 3> 일본 정부 부처별 지원책)
- 미얀마 정부와 경제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10월에 발족한 후 지원 내용과 시기 등을 포함한 행동계획 협의 착수
  - 델라와 개발과 수력발전소 및 통신망 정비에 주력. 양곤과 만달레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다웨이 항구 개발 등 포함
  - 인프라 이외에 상거래 확대에 필요한 법 정비 및 인재육성 지원
    - \* 미얀마의 증권거래소 개설 목표('15)에 맞추어 증권거래법 제정 및 원활한 운영 위한 전문가 파견. 일본 연수도 실시할 예정
  - 국제협력은행과 일본무역보험 활용한 의료, 법률, 농업 인재육성 지원

□ **2012년 들어 모든 상사가 미얀마에 진출하고 있으며, 음료 및 편의점에서부터 금융, IT, 건설, 천연가스,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진출 증가** (☞ 별첨 4> 2012년 미얀마 진출 일본 기업 동향)

- 일본 상사들은 양곤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일본기업의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진출에 놀라움 표시**

- 일본은 현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본국이나 태국에 있는 제조업 기반을 미얀마로 이전하겠다는 전략으로, 현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사업영역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 또한 일본은 위협적이지 않고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현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미얀마 현지 전문가)



#### 4) 인도, 동방정책 발표('92) 이후, BIMSTEC 회원국인 미얀마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 지역 영향력 확대에 주력

□ 중국의 남진정책에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으로 대응하였으나 성과 미흡. 하지만 최근 미얀마가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 중

○ 동북부 5개 지역 경제발전, 미얀마산 천연가스 및 천연자원 확보, 동남아 영향력 확대 등 그 동안 중국과 유사한 미얀마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성과는 미약했음

- 인도 동북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미얀마를 통한 동남아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 동북부~미얀마~태국으로 연결되는 육상로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 이에 반해 중국은 이미 미얀마 만달레이까지 육상 무역로를 완공한 상황
- 천연가스 수급용 파이프라인도 중국이 '13년 완공 예정인 반면 인도는 이제 싯프웨 항구 개발에 막 착수한 상태

○ 최근 적극적으로 미얀마와의 관계개선에 나선 미국의 지원으로 중국과의 격차 단축

-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인도는 한발 전진하게 되었고 인도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수록 그 속도는 빨라질 것임

□ 중국과 차별화되는 미얀마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중국 경쟁력 제고 추진

○ 인도는 중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미얀마의 낙후된 산업시설 기반과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합의 ('11.6)

- 인도-미얀마 3대 합의 내용: ▶미얀마 서북부~인도 동북부를 연결하는 80km 고속도로 건설 합의 ▶미얀마 청년을 위한 직업기술센터 설치 ▶농업 자급을 위한 1,000만 달러 지원과 농업환경 조성 위한 연구사업 착수

○ 인도 싱 총리의 미얀마 방문 ('12.5)으로 관계 긴밀화

- 인도 총리로서는 25년 만에 미얀마 방문, ▶미얀마 농업 근대화 5억 달러 차관 제공 ▶인도~미얀마~태국 연결 도로 건설에 합의

○ 또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측면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미얀마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석유·천연가스 분야의 ONGC, ESSAR, GAIL, Jubilant와 전력분야 NHPC 및 타타 자동차 등이 주요 진출 기업

○ 타타자동차는 '11년 초부터 연산 1천대 규모의 트럭생산 공장 가동 중

## 5) 미얀마, 중국 및 미국 등 서방국가와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면서 최대한의 이익 확보 전망

### □ 중국 및 서방국가의 경쟁적 구매 및 진출시도를 협상카드로 십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실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 ○ 미얀마의 엘리트들은 화려했던 과거와 지정학적 가치가 부활하는 것에 고무돼 있음

- '50년대 미얀마는 아시아의 부국으로 물류와 항공의 허브 역할 수행  
\* 당시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은 “싱가포르를 미얀마와 같이 만들겠다”고 언급
- 탄윈우(재미 역사학자)는 ‘New Great Game’에서 미얀마의 역할을 역설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낀 하찮은 연결고리가 아니라 새로운 실크로드 개척이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에너지 자원 획득을 위한 신거대게임 (New Great Gam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탄윈우. 2011

#### ○ 경제제재를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인식, 적극적 해제 노력 및 아세안 의장국 수입 계기로 발언권 강화 등 국제적 위상 확보 추진

#### ○ 또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인도·EU와도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과는 현재 수준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향후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미래 미얀마 정부에서도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 경제 개방에 있어서도 한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전략 추진 전망

- 육상 유전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에 개방을 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 기업에만 개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 다른 외국 기업들도 육상유전 개발에 참여 가능
- 일본의 띵라와 지역 독점개발권 요구에 한중일 공동작업 제의('12)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일본은 채무 탕감 및 엔차관 제공 등을 당근으로 띵라와 지역에 대한 독점 개발권한('20년 완공 목표)을 요청하였으나 미얀마는 기간 단축 ('15년 완공)을 요구하며 한국, 중국과의 공동 작업 제의

#### ○ 미국 및 중국의 해군 파견 및 주둔 요구도 미승인

- 미국은 2008년 태풍 나르기스에 의한 미얀마의 대규모 수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근의 해군을 파견하려 하였으나 미얀마 정부 거부로 무산
- 또한 미얀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안전을 위해 중국 해군의 접근 허용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
- \* 미얀마 정부는 외국의 군사력 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 3. 일본의 발 빠른 행보에 대응 필요

-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제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서방세계의 진출이 급증. 특히 올해 들어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 일본 기업 진출이 급진전
- 자원개발, 댐라와 프로젝트, 소형발전 등 인프라 사업과 양곤 개발 등 부동산 개발 등에서 일본과의 경쟁심화 예상
- 한국 정부와의 협력 통한 방안 모색: 미얀마에서의 경쟁은 국가 차원의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 모색 필요

#### 이명박 대통령 미얀마 방문('12.5) 이후 양국간 협력 강화 합의

- 미얀마측은 도로, 공항, 항만, 수력발전소 및 상수도 인프라 프로젝트 등 참여 요청
- 특히 한띠와디 신공항 건설, 양곤 현대화 프로젝트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또한 댐라와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지원, 해외시장개척자금 우선 배정 등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검토 중

※ 일본 상사와의 협력도 차선책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한류 활용방안 모색 등 미얀마 상황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World Bank, ADB, IMF 등의 미얀마 지원자금 활용 모색: 국제기구의 미얀마 지원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대규모 자금 지원 예상
  - 제안형 사업 적극적 개발 추진

## [별첨 1]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관련 법령 및 완화 현황

| 분야           | 내용                                    | 관련 법령         |                | 시작 연도 | 완화 여부                |
|--------------|---------------------------------------|---------------|----------------|-------|----------------------|
|              |                                       | 법률            | 대통령령           |       |                      |
| 비자금지         | 정부·군부 인사, 주요 지지자, 가족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      | 제이드법 외 2개     | 대통령포고 6925     | 1996  | 2012년 해제             |
| 금융거래 금지      | 미국으로부터의 또는 미국시민에 의한 모든 금융거래 금지        | 제이드법          | 대통령령 13047외 1개 | 1997  | 2012.5월 완화           |
| 자산동결         | 미얀마 정부와 정부인사 자산동결                     | 제이드법 외 1개     | 대통령령 13310외 2개 | 1997  | 2012. 9월 완화          |
| 미얀마산 제품 수입금지 | '03년부터 모든 제품으로 확대                     | 버마 자유와 민주주의 법 | 대통령령 13310     | 1990  | 2012. 9월 완화 (무기류 제외) |
| GSP 적용금지     | 미얀마산 제품 수입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 적용 금지 (최초의 제재) |               | 대통령 포고 5955    | 1989  |                      |
| 투자금지         |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 '97년 정부 종합조달법 | 대통령령 13047     | 1997  | 2012년 5월 완화          |
| 원조금지         | 양자원조 및 국제기구를 통한 미얀마 지원 금지             | 대외원조법 외 6개    |                | 1995  | 2012년 지원 반대 철회       |
| 무기수출 금지      | 미얀마로의 모든 군수물자와 서비스 수출 금지              | 무기수출 통제법      |                | 1993  |                      |

※ 자료: KIEP, 인터넷 자료 및 인터뷰 통해 정리

## [별첨 2] 미얀마 진출 관련 미국 기업 최근 동향

| 기업    | 내용                                                                                        |
|-------|-------------------------------------------------------------------------------------------|
| 캐터필러  | 2011년 8월 미얀마 정부 고위관료와 접촉, 엔진과 중장기기 판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이와 관련, 캐터필러는 정보 진위는 언급하지 않았음.         |
| GE    | 연내 양곤에 오피스 개설 발표('12.6), 가스터빈 등 발전 인프라 사업기회 탐색                                            |
| 쉐브론   | 말레이시아 회견('12.6)에서 "미얀마 석유가스 매장량을 언급하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진출하고자 한다"고 언급 (미얀마 안다만 위치한 가스전 권익 보유중) |
| 코카콜라  | 미얀마 Pinya사와 협력으로 생산공장 건설 발표 ('12.9) * 펩시도 진출 시기 모색중                                       |
| 포드    | 강력한 진출의사 표명 ('12.9)                                                                       |
| 마스터카드 | 카드업계 최초로 미얀마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발행할 수 있는 자격 획득('12.9)<br>* 비자카드도 미얀마 정부로부터 허가 약속 받음             |

※ 자료: 인터넷 종합 정리

### [별첨 3] 일본 정부부처별 지원책

|                 |                                   |
|-----------------|-----------------------------------|
| 외무성             | 국제협력기구(JICA)를 활용한 ODA 공여          |
| 경제산업성           | 대형 인프라 사업 조사. 경제특구 밀라와 개발 지원      |
| 재무성             | 증권거래법 정비를 위한 연수 실시, 전문가 어드바이스     |
| 법무성             | 회사법, 채권법, 노무법 등 조사                |
| 총무성             | 인터넷 고속화 및 해저 케이블 정비               |
| 국토교통성           | 운수, 방재, 수자원 관리 기술협력               |
| 국제협력은행(JBIC)    | 대형 융자 검토                          |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일본기업을 위한 미얀마 경제 등 정보 제공           |
| 일본무역보험          | 2년간 5억달러 무역보험인수 설정. 자원개발 안건 인수 재개 |
| 경단연             | 경영자로 구성된 미얀마 경제위원회 설립. 미얀마 사찰단 파견 |

※ 자료: 일경신문 2012.9.15

### [별첨 4] 2012년 미얀마 진출 일본 기업 동향

| 기업              |         | 내용                                                                                                  |
|-----------------|---------|-----------------------------------------------------------------------------------------------------|
| 상사              | 마루베니 상사 | -유와마 복합화력발전소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주 (380만달러)<br>* 미얀마 신정부 출범후 일본기업 최초 수주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br>-인프라, 식량분야 사업확대 모색 중 |
|                 | 이토추상사   | -히토류 금속 등 자원개발 사업화 조사(텅스텐, 몰리브덴) 5월 실시<br>-북수의 일본기업과 해양 가스전 개발 사업화 조사 위한 검토작업 시작                    |
|                 | 소지쯔 상사  | 양곤에 각각 100ha 규모의 공업단지 2곳 건설 중 (가전, 섬유, 자동차 등 50개사 정도 일기업 입주 목표. '15년까지 토지 양도 계획)                    |
|                 | 미쓰이 물산  | -화학비료 플랜트 등 노후화 시설 개보수 사업화 조사 실시<br>-양곤 발전소 및 상하수도 개수도 일본정부 지원통한 수주 가능성 모색중                         |
|                 | 히타치     | 전력, 도시개발, 교통 등 인프라 사업 추진                                                                            |
| 편의점             |         | 로손, 미니ストップ 연내 1호점 개점 예정. 100엔샵(다이소) 3월 1호점 출점                                                       |
| 식음료             |         | 일본 3위 업체인 'ITOEN' 청량음료 합작 공장 신설. '12년부터 판매 예정                                                       |
| Honeys          |         | 여성복 제조 자회사 설립 발표 ('12.2)                                                                            |
| Foster Electric |         | 스피커, 헤드폰 등 제조, 판매거점을 2012년 6월 설립. 렌탈 공장 활용                                                          |

|          |                      |                                                                                                                                                    |
|----------|----------------------|----------------------------------------------------------------------------------------------------------------------------------------------------|
| 금융       | 미즈호 코퍼레이션 은행         | -2012년 4월 6일,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br>-미얀마 관련 정보 연결·수집 체제 정비 및 거래처 지원                                                                                       |
|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미얀마 민간은행과 지원각서 체결 ('12.5)                                                                                                                          |
|          | 다이와 연구소 도쿄증권거래소      | 미얀마 중앙은행과 4월 10일, 미얀마에서의 증권거래소 설립 및 자본시장 육성 지원에 대한 협력 관련 각서를 체결하는 데 합의                                                                             |
|          | 다이요생명보험              | 주재원 사무소 개설('12.4)<br>미얀마의 금융·경제정세 및 생명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등 실시 예정                                                                                         |
| IT       | NTT 계열사              | NTT데이터, 일본 오프쇼어 개발거점으로서, 2012년 9월에 자회사 설립<br>NTT컴, 미얀마 국제전용회선 용량 10배로 확대<br>NTT도코모: 일본 휴대전화의 현지 국제로밍 위하여 정부와 교섭 시작                                 |
|          | Daiwa Security Group | -정보통신망 구축 (3.8억달러 투자, 정부부서, 학교, 병원의 PC 연결 계획)<br>-미얀마 현지 ACE Data Systems과 제휴, 신설회사 설립예정                                                           |
| 건설       | 시미즈 건설               | 양곤 사무소 10월 1일 개설. 최초의 미얀마 거점 개설 건설 업체                                                                                                              |
|          | 신일철 엔지니어링            | '09년 수주한 미얀마 예타군 광구 천연가스 송압용 플랫폼 및 연결 브릿지 건설 완료 ('12.7) 및 향후 개발사업 수주활동 적극 추진 계획                                                                    |
|          | JFE 엔지니어링            | -'95년 양곤에 지점개설후 현재까지 7건의 교량건설 개보수 사업 추진.<br>현재 이라와디강 하류 철도, 도로 개보수 계획 참여 ('12.9)<br>- 양곤시 폐기물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 (엔차관을 활용한 미얀마 최초의 폐기물 발전사업자 목표로 추진 중) |
|          | TTCL                 | -독립발전사업자(IPP)로 미얀마 전력개발 사업 계약 ('12.8)<br>10만 kW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전력 미얀마전력공사 판매<br>1.5억 달러 투자. 계약기간 30년. 연내 착공 및 내년 하반기 운전개시                          |
| 자동차 및 부품 | 혼다                   | 양곤에 사무소 설치 신청중. 태국 등 수입후 판매 계획                                                                                                                     |
|          | 이스즈 자동차              | 양곤에 자동차 조립공장 인수, 트럭 생산 시작 (초기 연 1000대 에서 향후 10,000대까지 확대 계획) 일 자동차 업계 현지조립생산 최초                                                                    |
|          | 스즈키                  | 기존 파트너사와 동일한 합작구조로 승용차 및 오토바이 합작공장 설립 계획 (땔라와 지역에 '15년까지 연 2~3만대 규모 조립공장 신설 검토 중)                                                                  |
|          | 히노자동차, 미츠비시, 도요타     | 미얀마 진출 검토 중으로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업체인 도요타 보쇼쿠, 파이오니어 등도 진출 검토 중                                                                                           |
|          | 도요타 방직               | 도요타자동차 계열사, 자동차 시트, 천정재 등 제조 공장 신설 검토중                                                                                                             |
|          | 미쓰이상선                | 2012년 3월 중순, 24년만에 양곤에 컨테이너선 취항                                                                                                                    |
|          | 전일본공수(ANA)           | 12년 만에 미얀마 정기편 재개를 표명('12.4), 연내 취항 예정                                                                                                             |
|          | 천연가스전                | JX에너지. 태국 PTTEP사의 해상 천연가스전 (Martaben) 지분 15% 인수 ('12.9). 일본 유일의 미얀마 가스전 광구지분 보유 기업                                                                 |

※ 출처: GIH 및 인터넷 종합 정리

## [참고 자료]

### [인터뷰 및 공개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전화 인터뷰, 2012. 10. 26.

### [언론자료]

일경신문, '미얀마에 대한 정부 부처별 지원책', 2012.9.15

### [학술자료]

강대창, "미얀마 신정부 출범과 서방의 제재 변화 가능성", KIEP, 2011.5.6

오윤아, 박나리, "미얀마의 개혁개방 경과와 전망", KIEP, 2012.4.25

오윤아, 장준영 등, 『미얀마 사회문화 정치와 발전 잠재력』, KIEP, 2011

이재현, "미얀마 정치 자유화의 국내외적 의미와 향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12.2.20

SERI 경제 포커스,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얀마", SERI, 2012.5.8

Asia Society Task Force Report, 『Current Realities and Future Possibilities in Burma/Myanmar: Options for US Policy』, Asia Society, 2010

### [홈페이지 자료]

KOTR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KIEP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기업진출 사례 등, 인터넷 종합